

# 여수시청 진민섭 장대높이뛰기 호주대회 우승

뉴사우스웨일즈 오픈 챔피언십  
9번째 한국신기록 수립은 불발  
광주시청 정혜림 100m 허들 2위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정된 진민섭(27·여수시청)이 세계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NSW ON DAY 대회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뒤 불과 8일만에 열린 2020 뉴사우스웨일즈 오픈 챔피언십에서 1위에 올랐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진민섭은 8일(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올림픽파크 육상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부 장대높이뛰기에서 5m50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진민섭은 이날 첫 번째 바 높이인 5m50을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후 한국신기록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5m81에 도착했지만 세 차례 모두 바를 넘지 못하며 아홉

번째 한국신기록 수립은 다음 기회로 넘겼다. 하지만 진민섭은 오는 14일 호주 울커머스-뱅크 스타온 대회에 참가해 새로운 한국신기록 수립에 도전한다. 진민섭은 "이번 대회 아쉽게 한국신기록을 새롭게 쓰지 못했지만 우승과 함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어 만족한다"며 "다음 대회에서 또 한국신기록 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민섭은 지난 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NSW ON DAY대회 장대높이뛰기에서 5m80를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는 종전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5m75)을 깨고 8번째 신기록을 작성했다. 진민섭은 2013년 처음 한국기록(5m64)을 세웠고, 지난해 세 차례나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태백 전국실업선수권에서는 5m75를 넘어 개인 통산 7번째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2020 뉴사우스웨일즈 오픈 챔피언십 100m 허들에 출전한 정혜림(33·광주시청)은 13초64로 2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진민섭(오른쪽 두 번째)이 8일 호주 2020 뉴사우스웨일즈 오픈 챔피언십 장대높이뛰기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유도대표팀 러시아 대회 출전 무산  
랭킹 점수 못 따 올림픽 출전권 타격

유도대표팀의 2020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그랜드슬램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대한유도회는 9일 "2020 도쿄올림픽 랭킹포인트 획득을 위해 참가 예정이었던 예카테린부르크 그랜드슬램은 러시아 보건당국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2주 격리 조치를 내리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본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 출전권 분배 규정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남은 대회 출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제유도연맹 등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도대표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 랭킹 포인트가 걸린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개막 예정이었던 2020 모로코 라바트 그랜드슬램은 대회 자체가 취소됐고, 13일부터 열린 예정인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그랜드슬램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출전이 무산됐다. 당초 라바트 그랜드슬램엔 남자 66kg급 안바울(남양주시청) 등 총 15명의 선수, 예카테린부르크 대회엔 체금범 국가대표 20명의 선수가 출전할 계획이었다.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올해 5월 기준으로 체급별 올림픽 랭킹 18위 안에 들어야 한다. 올림픽 랭킹은 랭킹포인트가 걸린 국제대회 성적을 통해 쌓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빙속 정재원, 페이스 메이커에서 주인공으로

월드컵 6차대회 파이널  
매스타트 극적 금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했던 정재원(19·서울시청)이 드디어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정재원은 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파이널 남자 매스타트에서 극적인 명승부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7분47초06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스프린트포인트 6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쉽지 않은 레이스였다. 정재원은 레이스 초반 중위권에 머물렀다. 체력을 비축해 레이스 후반부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었다. 레이스 3바퀴를 남기고 변수가 생겼다. 네덜란드

장거리 간판 요릿 베르흐스마가 갑자기 속력을 끌어올렸고, 선두권과 2위 그룹간 거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재원은 있는 힘을 다해 베르흐스마를 따라붙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정재원은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체력이 떨어진 베르흐스마를 제친 뒤 미국의 조이 만티아, 벨기에 바트 스윙스와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였다. 승부는 아슬아슬하게 갈렸다. 정재원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쏟아내 스윙스(7분47초120)를 0.06초 차이로 누르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재원이 성인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월드컵 포인트 180점을 얻어 최종 포인트 462점, 세계랭킹 3위로 올 시즌 월드컵 매스타트 무대를 마무리했다. 정재원이 포뮬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가까진 우려 국적이 있었다.

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많이 했다. 만 17세의 나이에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함작,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세운 것까지 좋았다. 그는 매스타트에서 적잖은 논란에 휩싸였다. 정재원은 대표팀 전략에 따라 페이스 메이커로 나서 이순훈의 금메달 획득을 도왔는데,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았다는 시선을 받았다. 정재원은 풍파 속에 좀처럼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사이 국내 장거리 1인자 자리는 엄전호(스포츠포토)가 꿰찼다. 올 시즌엔 조금씩 성장했지만, 국제대회마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삼켰다. 월드컵 1차 대회와 4대륙 선수권대회 매스타트에서 각각 2위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정재원은 올 시즌 마지막 무대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길고 긴 무관의 아픔을 벗어났다. /연합뉴스

# 펜싱 한국 남자 사브르, 시즌 두번째 월드컵 우승

여자 에페 송세라 그랑프리 준우승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2019-2020시즌 두 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오상욱(성남시청),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남

자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네 선수는 지난해 11월 이집트 카이로 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남자 사브르는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하한솔(성남시청)이 출전한 지난달 폴란드 바르샤바 대회 준우승까지 이번 시즌 세 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결승에 진출하며 단체전 세계랭킹 1위를 고수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16강전에서 영국을 45-38, 8강전에서 프랑스를 45-41로 누르고 4강에 진입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 독일을 45-37로 물리친 한국은 세계랭킹 3위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하며 45-32로 완승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에페 그랑프리에서는 송세라(부산시청)가 알렉산드라 루이 마리(프랑스)에 이어 여자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송세라는 2016년 11월 중국 우저우에서 열린 월드컵 동메달 이후 FIE 주관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두 번째 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명장 가르디올라의 굴욕  
시즌 7패로 단일 시즌 최다 패배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지휘하는 페르 가르디올라(49·스페인) 감독이 1군 사령탑으로 활동한 이후 '단일 시즌 최다 패배'라는 쓴맛을 봤다. 맨시티는 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30분 앙토니 마르시알에게 선제 결승 골, 후반 추가 시간 스콧 맥토키니에게 썩기 골을 얻어 맞고 0-2로 졌다. 이날 패배로 리그 2위 맨시티는 18승 3무 7패(승점 57)가 돼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리버풀(27승 1무 1패·승점 82)과 25점 차를 좁이지 못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옵타에 따르면 가르디올라 감독이 사령탑을 맡으면서 한 시즌에 7패나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르디올라의 감독 이력은 화려하다. 2008-2009시즌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지휘봉을 잡은 이래 지난 시즌까지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끈 10시즌 중에 리그 우승에 실패한 것은 단 두 차례뿐이다. 바르셀로나에서 2011-2012시즌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2위, 맨시티 지휘봉을 잡은 첫해인 2016-2017시즌 첼시, 토트넘에 밀려 3위를 차지한 것이 가르디올라 감독이 리그 우승을 못 한 사례다. 맨시티가 2016-2017시즌 3위를 할 때 6패(23승 9무)가 가르디올라 감독의 한 시즌 최다 패 기록이었다. /연합뉴스

### 산행안내

3월1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11일(수) 전북 부안 우금산 산행, 백운로타리아이어뱅크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3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21일(토) 여수 천혜의 비경 연도(소리도) 섬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2:3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2:40, 염주체육관 정문 02:50, 한국병원 앞 03:0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3:15,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3:3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3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3월 22일(일) 북한산(835.6m) 백운대-만경대-대동문, 염주체육관 05:00, 무등경기장 05:20, 동광주 홈플러스 05:4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아이어뱅크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이닝타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황세연(920214-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상동로 64, 402동 1205호 (상동, 상동 3, 4단지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신안군 장산면 행리리 595  
피상속인 망 황세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노단83호로 신청하여 2020년 3월 3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 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10일

· 상속인 : 황도식(620108-XXXXXX)  
목포시 상동로 64, 402동 1205호 (상동, 상동3,4단지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3. 10 ~ 2020. 5. 1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황도식의 주소

###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단489  
병역법 위반

· 피고인 : 박현규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3월 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정희철

##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인버저블맨
2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그린 북,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윈더 아이 필 프리티
4관	정직한 후보
5관	1917
6관	인버저블맨

### 동화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 동화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코나보라안 바이올린 리시탈  
4.9(목) 19:30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 화양연화: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일)  
광주문화예회관 갤러리